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0. 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 「마크롱」 대통령, “탈레반, 여성권리 보장해야 정부 인정”
 - 10.6 프랑스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이 공식 정부로 인정받으려면 ‘여성의 권리’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달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정상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
- 獨, 군 의장대內 ‘나치 추종세력’ 적발
 - 10.11 독일군 당국은 軍 의장대內 극우성향의 ‘나치 추종세력’을 적발해 조사 중이며, 우두머리 격인 상병(32세) 1명과 부사관 2명 등 핵심 구성원 5명을 비롯해 여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
 - * 이들이 그간 「메르켈」 총리 및 주요국 정상 참석 행사에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면밀히 수사 中

미주

- 美, ISIS 선전물 ‘영어 나레이터’ 기소
 - 10.6 美 버지니아 연방지검은 ‘14~17년 시리아의 ISIS에 합류하여 서방 인질 참수 영상 등 ISIS 선전물 동영상의 영어 번역 및 나레이터로 참여했던 사우디 아라비아계 캐나다인 「모하메다 칼리파」(38세)를 기소
 - * 同인은 ISIS 선전물 제작 핵심 역할뿐 아니라 전투 참여 등 활동을 하다가 '19.1월 체포, 범죄혐의 모두 인정시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
- 美·英, 아프간 카불 호텔 테러 위협으로 자국민 대피령
 - 10.11 지난 9일 아프간 재점령 후 처음 이뤄진 美-탈레반 회담 직후, 수도 카불의 세레나호텔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美 국무부와 英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해당 호텔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
 - * 同 호텔은 아프간의 가장 유명한 호텔로 △'08년 자폭테러(6명 사망) △'14년 무장괴한 습격(9명 사망) 등 테러 위협에 꾸준히 노출

아 · 태평양

○ 탈레반, ISIS-K 은신처 습격 및 파괴 선언

- 10.6 탈레반 대변인 「자비홀라 무자히드」는, 지난 3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민간인 대상 폭탄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ISIS-K의 은신처를 수시간內 찾아내어 약 3시간의 교전 끝에 완전히 소탕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

* ISIS-K는 지난 8월 카불 국제공항 폭탄테러 자행(사망 180여명) 등 탈레반과 충돌 지속

○ 中, 美에 ETIM 테러단체로 재지정 요구

- 10.6 「경상」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는 유엔총회 법률위원회 연설에서 신장지역 위구르족 분리주의 단체 ‘東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(ETIM)’을 테러단체 명단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

* 同단체는 UN 지정 테러단체로, 미국은 '20.11월 자체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

○ 호주, ‘어린이 이용’ ISIS 선전물 제작 남성 징역형 선고

- 10.11 호주 NSW州 대법원은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교복 입을 어린이를 출연시킨 ISIS 지지 동영상*을 제작하고 SNS에 테러 조장 메시지를 남기는 등 테러를 찬동한 남성에게 징역 2년 11개월 선고

*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고 바라클라바(안면두건)을 착용한 어린이에게 同人이 “알라는 가장 위대하다”라고 말하도록 하는 장면이 포함

중 동

○ 이라크, ISIS 최고 지도자 체포

- 10.11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국가(ISIS)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「사 야셈」을 체포하였다고 발표, 「알 키디미」 이라크 총리는 “지금까지 수행한 다국가 연계 첩보작전 중 가장 고난이도였다”고 언급

* 美 국무부는 야셈이 ISIS의 전성기 때 재무장관으로서 석유·가스·문화재 및 광석 불법판매 등 테러자금 지원에 중추 역을 했으며 현상금 500만불 제시

이라크, 美 군정 본부 목표 자살폭탄 테러

- '03.10.12, 12:45경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발물 적재 차량 두 대가 美 군정이 본부로 사용 중인 「바그다드」 호텔로 돌진 중 경비병들의 저지로 진입에 실패하며 출입구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 후 폭발(사망 7·부상 32)
* 同 호텔에는 美 군정 관리, CIA 요원 및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 위원들이 상주
- 이번 테러는 「부시」 美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후 40여일만인 '03.5.1, '적과의 사실상 전투 종료' 선언 후 최초의 미국 관리들의 핵심 근무지를 노렸다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美 군정에 대한 강한 반발 표출로 평가
- 이라크 戰後 문제를 총괄중인 「폴 브래머」 美 군정 최고 행정관은 사건 직후 “폭탄테러 연계자들을 응징하겠다”고 선언
- 한편, 이라크 시민들은 “자국의 現 체제는 실패했다”며 폭탄테러를 막지 못하고 있는 美軍의 무능력을 비난하며 거리 시위를 전개

< 이라크 전쟁 >

- (원인) '01년 9·11테러 발생 후 미국은 북한·이라크를 '악의 축'으로 규정하고,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(WMD)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'03.3.20 전쟁을 개시
※ 전쟁기간 : '03.3.20 ~ '11.12.18
- (전쟁) 開戰과 동시에, 영국·오스트레일리아 등 연합군은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와 바그다드를 3.22과 4.9 차례로 장악후 이라크 최후의 보루이자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크리트 중심부로 4.14 진입함으로써 전쟁은 발발 26일만에 사실상 종료
- (여론) 세계 각국은 미국의 전쟁은 이라크의 자유보다는 ① 원유 확보 ② 중동지역에서의 親美 블록 구축 등 해당 권역의 정치구도 재편이 주목적이었다고 비난